사진기자의 딴 짓

'히잡' 두른 여성 야구팬?

지난 25일 프로야구 KIA와 두산의 시범 경기가 열린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도 봄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화사한 봄 옷을 차려입고 나들이 온 가족들, 데이트하는 젊은 연인들이 관중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가운 햇볕,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초여름날 씨였습니다.

야구장을 찾은 여성들은 특히 걱정이 많더군요. '봄볕에 그을리면 임도 몰라본다던데' 하고 말입니다.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제 등이 없이 '비무장' 상태로 찾았던 야구장, '햇볕의 폭격'을 무서워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 야구팬들, 황급히 '방패'를 챙기더군요. 옷가지와 타올, 숄 등을 말입니다. '히잡' 처럼 머리와 얼굴을 감싼 뒤 경기를 지켜보면서 선수들을 응원하더군요. 햇볕은 무섭지만 야구는 즐거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궁금하더군요. 도심에서 배꼽을 드러내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여성들은 햇볕이 두렵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자외선에 당하는 무서움보다 노출의 자부심이 더 큰 걸까요.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뉴스퀴즈 55·56회 공영단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55·56회 뉴스퀴즈 추첨 결과, 공영단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공씨는 26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55·56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12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경무과 이계현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공영단·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2등 ▲이진숙·목포시 산정동

뉴스퀴즈

57. '마린보이'로 불리는 이 선수가 지난 25일 오후 호주 멜버른에서 펼쳐진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기적같은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3분44초3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수영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태환 ② 강용환 ③ 이안 소프 ④ 그랜트 해켓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 한국 남자, 한국 여자

〈남자〉

1. 아내가 저녁상을 완벽하게 다 봐 놓고 모임을 갔는데도 한국남자가 저녁을 굶는 이유
- 밥그릇은 뚜껑이 덮혀 있고 반찬은 랩으로 씌워 있어서
2. 한국 남자가 집안에서 미끄러지는 이유
- 자기가 먹고 방 한가운데 던져 놓은 바나나 껍질에 발을 헛 디뎌서
3. 한국 남자가 집 안에서 살살 걷는 이유
- 여기저기 자신이 던져 놓은 쓰레기를 피해서 걸어 다니느라
4. 한국 가정에서 소파를 자주 바꾸는 이유
- 가운데가 패여서(늘 같은 자세로 누워 있다 보니 하중이 많이 나가는 중간 부분만 패임)
5. 한국 남자가 아내에게 신형 휴대전화를 사서 목에 걸어 주는 이유
- 소파에 누워 TV 보다가 찬물이 마시고 싶어서 아내를 불러야 하는데 아내가 가끔 화장실에 있거나 설거지 하느라 남편 목소리를 못 들어서

〈여자〉

1. 한국 여자가 냉장고를 열어 보고 열 받는 이유
- 빈 물통이 들어가 있어서 (물통의 물을 다 마시고 물이 다 떨어졌는데도 누군가가 그냥 넣어 놓음.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2. 한국 여자가 소파 밑을 청소하다 열 받는 이유
- 냄새나고 뒤집어져 있는 양말이 쑤셔 박혀 있어서
3. 한국 여자가 정말 열 받을 때
- 남편이 3박 4일 걸린다던 출장을 2박 3일만에 마치고 돌아올 때.
4. 한국 여자가 절망할 때
- 3박 4일로 간다던 출장이 취소됐다고 좋아하는 남편을 볼 때.

■ 소개팅에서

어떤 총각이 소개팅을 하게 됐다.

장소는 고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어느 레스토랑.

테이블 위의 촛불과 은은한 조명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그 사이를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형식적인 호구 조사(?) 가 끝나고 취미 얘기를 하게 되었다.

총각이 물었다.

"저, 음악 좋아 하신다죠?"

"예."

"주로 어떤…"

"클래식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때 주문했던 돈까스가 나왔다.

총각이 다시 물었다.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우아하게 돈까스를 썰던 아가씨는 멈칫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시선을 접시 쪽으로 내리며 말했다.

" 돼지고기 아니예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7일(음 2월 9일 庚申)

子 36년생 경거망동하지 말고 더 관망하면서 계획만 세우라. 48년생 데리고 있던 협력자도 도망간다. 60년생 점차적으로 축소하며 실리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72년생 오랜 친구가 반갑게 대하지 못하는 형상과 같다. 84년생 꼼짝도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06, 28

丑 37년생 이면적으로 정리하고 하고 있는 사업의 점검이 필요할 때다. 49년생 서둘지 말고 靜觀할 필요가 있다. 61년생 더한 객관적인 판단이 서야한다. 73년생 하늘이 협조하니 과욕해도 좋으리라. 85년생 호랑이 코털을 건드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13, 41

寅 38년생 매사에 큰 진전은 없고 먹고 노는 유흥수가 많다. 50년생 큰 고생은 없으나 새로운 투자는 금하라. 62년생 의외의 재가생기고 부부간의 정이 새롭다. 74년생 이성간의 문제가 말썽 수니 처신을 잘해야. 행운의 숫자 : 24, 27

卯 39년생 時機尙早인듯 하나 안내자가 나타난다. 51년생 남의 말 믿고 좋은 곳으로 변동하려고 하지마라. 63년생 가정위주로 진로를 돌려라. 75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연결만 進行한다. 행운의 숫자 : 23, 43

辰 40년생 여성은 아들을 살펴보면 고충을 알 것이다. 52년생 급진은 불허하니 서행하며 살펴가야 재물이 생긴다. 64년생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때다. 76년생 주변 정돈을 정확하게 관단하라. 행운의 숫자 : 18, 32

巳 41년생 변동에 변동으로 情分이 생겨나질 않는다. 53년생 兇多吉小로 괴로움이 많다. 65년생 우선은 어려우나 길사가 발생할 징조는 있다. 77년생 변동 변화는 마지막 아픔이 더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42

午 42년생 金氣運이 강하니 간장을 살펴보라. 54년생 하루 종일 조심하라 믿는 도끼가 춤을 춘다. 66년생 흉이 복으로 되는 길목에 섰도다. 78년생 코와 피부염을 조심하고 요통 위장까지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1, 34

未 43년생 주변을 정리하고 절대로 신사는 참여마라. 55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내일을 준비하라. 67년생 희비가 雙哭하니 무리수는 두지 마라. 79년생 크게 도움 받는 일은 없지만 내용적 계획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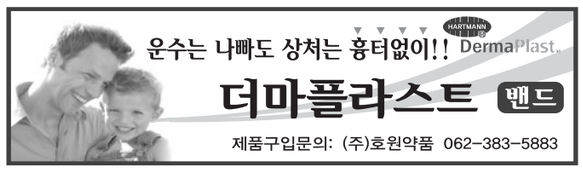
申 44년생 암울했던 과거는 지나가고 안도의 기분이다. 56년생 조심스런 외출은 할 수 있으나 아직 재물은 궁하다. 68년생 고민하지 말고 옛날의 좋은 인사를 찾아보라. 80년생 暗雲이 자생하니 신중히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0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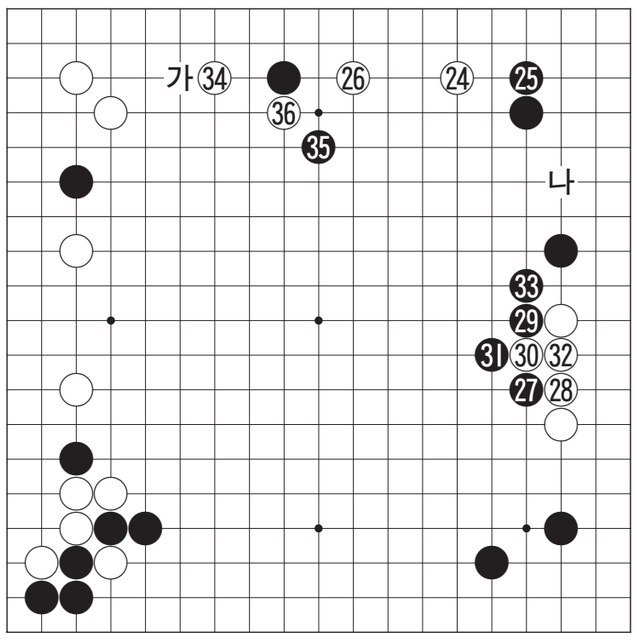
酉 45년생 어려운 시절이 지나니 향후를 위해서 좋은 설계가 필요하다. 57년생 하늘이 노하니 백사에 도움이 없다. 69년생 하늘이 도우니 수입은 무난하다. 81년생 자녀들의 활동이 활기차고 돋보인다. 행운의 숫자 : 20, 39

戌 46년생 대고가 없이 진행사가 순조롭다. 58년생 직업이 새로 생기고 가도의 안정이 뒤 따른다. 70년생 마지막 조심을 더하라 설계는 그리나 진행은 하지마라. 82년생 활동에 불편이 생기고 말조심을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6, 22

亥 47년생 변동은 금물이고 투자는 손재만 남는다. 59년생 마무리를 잘하고 과욕은 금하라. 71년생 칭찬이 없어도 내실을 기하라. 83년생 소비가 사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하니 심신을 안정하라. 행운의 숫자 : 15, 3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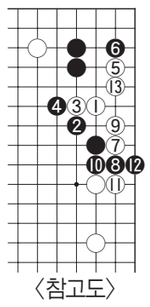




제11기 SK가스배 프로10걸전

독특한 취향 3보(24~35)

白 이재웅 5단 黑 김수용 초단



〈참고도〉

김수용 초단은 작년 원익배 십단전 본선진출을 시작으로 지방연구생 출신의 핸디캡을 완전히 극복한 모습이다. 2007년의 전적이 6승 5패로 보통으로 보이지만 저단자 시절에는 주로 강자들과 만나게 되는데다가 승점에는 서봉수 9단, 백성호 9단, 최명훈 9단 등 맹장들이 들어 있어 매우 알찬 활약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 24까지 상변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당연하게 보인 '가'의 벌림을 뒤로하고 김수용은 흑 27로 짚어 간다. 이 수는 우상쪽에 세력을 펼치는 의미도 있지만 백이 '나'에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는 의미가 짙다. '참고도'는 백이 쳐들어왔을 때의 예상도로 흑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

백 28부터 33까지는 상용수법으로 중반정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선수를 잡은 이재웅 5단이 34를 차지한 것은 당연하며 흑 35가 독특한 우측 세력을 의식한 독특한 취향이다. 백의 다음 수는?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백홍석, BC카드배 결승 진출

백홍석 5단이 26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7회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준결승전서 박승화 초단을 179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백 5단은 윤준상 4단과 원성진 7단의 대국승자와 결승 3번기로 패권을 다툰다. 지난해 SK가스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백 5단은 이번 결승진출로 신예기전 2관왕을 바라보게 됐다.

박승화 초단은 김진우 3단, 박승철 5단, 홍성지 5단 등 선배 기사들을 꺾고 4강에 올랐으나, 백 5단의 기세에 눌려 고배를 마셨다. 우승상금은 2천500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69>

If I were in your shoes

만약 제가 당신 입장에 선다면

A:I'd hate to be the boss.
B:Why?
A:It's really a tough job.
B:True. **If I were in his shoes**, I'd probably have a nervous breakdown.

A:저는 사장이 되고 싶지 않아요.
B:왜요?
A:그건 정말로 힘든 일이잖아요.
B:그건 사실이야. **만약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신경쇠약에 걸렸을 거예요.

hate to~ = don't like to~
tough : 힘든
nervous breakdown : 신경쇠약
True = That's tru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69>

何(なん)か變(へん)な臭(にお)いにさい?

뭔가 이상한 냄새 안나?

A:臭(くさ)い、**何(なん)か變(へん)な臭(にお)いにさい?**
B:するね。あっ、そう言(い)えば隣(とな)り部屋(へや)でペンキ塗(ぬ)ってたよ。
A:いやだ~。コヒの香(かお)りを樂(たのし)もうと思(おも)ったのに。

A:아! 냄새! **뭔가 이상한 냄새 안나?**
B:그러게. 아 그러고 보니 옆집에서 페인트 칠하고 있었어.
A:아~정말 싫다, 커피향을 즐기려고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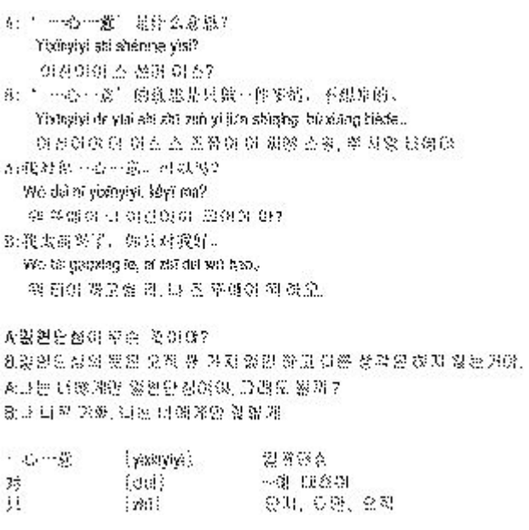
におい : 臭い(나쁜 냄새)
匂い : 냄새, 향기
香(かお)り : 향기(좋은 냄새)
思(おも)う : 생각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60>

一心一意

일편단심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87>

駙 馬 (부 마)

곁말 부, 말 마

왕의 사위 또는 공주의 남편을 부마(駙馬)라고 한다. 부마는 본래 천자가 타는 예비수레인 부거(副車)를 끄는 말이다. 따라서 부마도위(駙馬都尉)란 그 말을 맡아 보는 관리이다. 이 부마도위의 봉록이 재상(宰相)에 견줄 정도이므로 나중에는 오직 천자의 사위에게만 부여하게 되었다. 여기서 부마도위는, 보통 줄여서 부마라고 하고 '임금의 사위'가 되었다.

옛날 농서(隴書) 땅 신도탁(辛道度)이란 젊은이가 스승을 뵙기 위하여 옹주(雍州)로 가는 도중 날이 저물어 큰 저택에 들어갔다가 진(秦)나라 민왕(閔王)의 공주라는 여성과 며칠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나흘 되는 아침에 공주는 아쉬운 이별의 정표로 신도탁에게 금 베개를 주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저택이 있던 곳에는 잡초 무성한 가운데 무덤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이후 신도탁은 금 베개를 저자거리에 팔아 음식을 사 먹었는데, 우연히 왕비가 그 금 베개를 발견하고 그를 잡아와 문초하였다. 신도탁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왕비는 죽은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산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으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내 사위라며 그에게 부마도위라는 벼슬을 내리고 후대했다고 한다. (搜神記)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